

출판문화의 건강한 확산

최 윤

서강대 불문과 교수·소설가

순서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한 예술 장르를 선정해서 장려하는 목적으로 몇년 전부터 시작된 문화 계획의 서두를 ‘책의 해’가 장식하지 않았음을 서운하게 생각하는 편이고, 모든 예술장르를 총괄하고도 남는 책이라는 분야가 좁이나 연극과 동일한 비중을 지니는 하나의 예술장르처럼 다루어지는 것도 왠지 허전하다. 그러나 이미 시작되어 풍성하게 기획 진행중인 책의 행사들은, 그 결과가 어떠한 귀중하게 느껴진다. 진정으로 우리 서적 문화의 질적 심화와 다양화가 동시에, 절실하게 요구되는 문화의 한 지점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문화 전반이 대중문화로 치닫고 책 또한 문화의 생산과 소비의 밑물에 휩쓸리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듯이 보인다. 우리는 동일한 상황에 처한, 혹은 그런 방향을 향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을 예로 들면서 잠시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책의 문화는 출판의 양에 있어서나 그것을 소비해 내는 힘에 있어서나 아직은 놀라운 역동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때로 이 역동성은 장기적인 기획이 부재한 경우를 자주 내보여서 공허하게 느껴지고 형성되지 않는 다양한 층의 독자층의 결여로 소리만 큰 수레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우리의 대중문화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서적문화의 질의 다양화, 그리고 그에 따른 독자의 다층화의 전통이 뿌리를 채 내리기 전에 부분별하며, 새로운 권위의 형태로 불어닥쳤다는 데 있을 것이다.

책의 위기와 쌍둥이로 언급되는 영상매체나 컴퓨터의 등장은 어쩌면 위기의 가장 먼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그것들이 일찌기 보급된 나라에서 출판의 양을 줄이지는 않았다. 어쩌면 그 분야에 필요한 만큼의 출판의 양이 증가되었을 것이다. 독서의 대중문화화 또한 전세계가 동참하는 걱정거리이다. 그러나 책문화가 자리잡은 몇몇 나라에서는 양질의 서적의 출판량이 걱정스러운 정도로 축소하지 않았으며, 책만이 있던 시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도 약화되어 보이는 양질의 책들의 소화 또한 여전히 씩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라고 들었다. 그러나 그런 현상의 배후에는 바로 이러한 문화의 위기가 감지될 때마다 과감히 변신하면서 애초의 질의 계획을 수정하지 않는 출판의 기획들과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제도들, 또 독자에게 선정된 책을 새롭게 선보이는 기능과 경제의 부침 속에서 책의 상당량을 소화해 내는 수많은 지역 도서관, 다각적인 지원 제도, 그런가 하면 다양한 질의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내면서 고급 독자를 양성하는 긴 협동의 기간이 있다.

단시일 내에, 투기나 양적 공세 혹은 우격다짐으로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 모든 문화의 향상이 그러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서적의 문화가 그러하다. 양질의 출판과 양질의 독자의 형성을 위해서는 저자와 출판인, 그리고 독자의 공동적인 믿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뉴스 2 **일산출판문화산업단지 정기총회·외**

특별기고 4 **“문치교회의 정도를 걷기 바란다”** — 권영빈
책 읽는 대통령을 기대하며

리뷰 6 **책으로 그려보는 신한국의 청사진**
문민정부 개막 맞춰 관련저술 잇달아 출간

연중기획 8 **팔만대장경 봉안된 우리출판의 성지**
책의 해에 찾아간 책의 명소 ② - 해인사 정경각

표지인물 10 **“박제화된 서구신학으로부터의 엑소더스”**
민중신학 개인전집으로 정리하는 안병무 박사

서평 12 **고재환 「제주도속담연구」** — 김현양
강명구 「한국언론전문직의 사회학」 — 강현두

13 **구자건 외 「생태계 위기와…」** — 조병철
보드리야르 「기호의 정치경제학」 — 김종엽

14 **구모룡 「한국문화와 열린체계…」** — 김선학
양선규 「나비꿈」 — 문홍술

출판화제 15 **책속에서 모색하는 교육문제의 해결책**
입시부정 계기로 독자들 관심끌어…원칙과 현실 조화돼야

초점 16 **작고 예쁜 책들 서점가 본격 상륙한다**
사륙판 하드커버 새 유행 조짐… 일부선 비판제기

쟁점 18 **삶의 유한성이 피운 안타까운 상사화**
김성철 서효원 이연주 등의 유고집 독자들 관심 끌어

시집서평 20 **폐허속의 글쓰기, 겨울시단의 풍경** — 신현철
비평가가 읽어본 이 계절의 시집들

이책그사람 22 **「내일의 신부에게」** 펴낸 최순덕씨
「58억7천만년의 고독」 낸 함성호씨

23 **「장자」** 새롭게 역주한 안동림 교수
「이제 학교도서관을 살리자」 낸 허병두씨

시론 24 **글쓰기의 전략, 혹은 주체의 능동성 부정** — 류보선
이른바 ‘베끼기’를 둘러싼 최근의 구설수를 보며

세계의 책 26 **대중문화시대 민주주의의 운명·외** — 배병삼

28 독자서평

30 화제의 신간

32 신간안내

38 200자 안내

40 신간목록

48 프리즘/재미있는 책 이야기/정기구독안내

표지사진/김홍진